

# 광주·전남 국회의원 1년 성적표 성실하지만 정치력은 '한계'

### 18명 중 초선이 13명 다수 본회의 참석률 90% 이상 법안 발의 의원 간 성적차 지역 현안 '팀워크' 부족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1년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18석 모두를 싹쓸이하면서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한 21대 총선은 호남 정치 변화의 변곡점으로 기록됐다.

4년 전 '녹색대풍'의 주역이었던 6선 중진 등 민생당 의원들이 모두 '문풍'에 날아갔고, 국회에 입성한 18명 중 13명이 초선으로 세력과 세대 교체가 동시에 이뤄졌다.

일당 독점에 정치 신예로 채워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1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14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국정 활동 자료(3월2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이었으나 법안 발의와 처리는 의원 간 차이가 있었다.

광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8명 중 국회 개원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이형석(북구을)·민형배(광산을) 의원이고, 광주 의원의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3.4%다. 전남지역 의원 10명의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



왼쪽부터 동남갑 윤영덕, 광산갑 이용빈, 동남을 이병훈, 서구갑 송갑석, 서구를 양항자, 광산을 민형배, 북구갑 조오선.

률은 96.4%로 광주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와 개인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면 국회 국정활동의 성실성은 합격점이라는 평가다.

법안 발의에서는 의원 간 성적 차가 나타나 초선의 한계를 드러냈다.

광주지역 의원 8명의 대표발의 법안은 371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46.4건을 발의했다.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115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윤영덕(동남갑) 의원이 16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9건으로 송갑석(서구갑)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윤영덕 의원이 2건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지역 의원 10명의 대표발의 법안은 289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28.9건이다. 김원이(목포) 의원이 가장 많

은 43건을 발의했고,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적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1건(21.2%)에 불과했다.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인 22.4%보다 낮은 수치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33건 중 12건(처리율 36.3%)을 통과시켜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력 부재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가장 뜨거운 의제였던 군공항 이전과 시·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군공항 이전과 시·도 행정통합 모두 국회의 입법 지원과 중앙정부의 행정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데도 국회의원들이 대한 제시에 적극성을 보이지



왼쪽부터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원이(목포), 주철현(여수갑),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김희재(여수을)

않았다.

경상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간 대립구도를 보이다가도 지역 현안 앞에서는 '원팀'을 이루는 것과 비교하면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초선이 다수인 지역 정치지형상 향후 호남 정치력 확대를 위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예산 확보, 의제 선점, 정치 협력력 등 국회의원 개인의 중량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국회의원 모두가 범외인 일색인 데다 광주·전남의 386세대가 전국에 비춰 상대적으로 '막자'를 탄 만큼 정치 자원의 다양성 확대도 필요하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에서 호남 몫의 최고위원 지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국적 지명도를 높여 지도부에 입성해야 한다는

자강론도 호남 정치력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오승용 키폴리정책리서치 대표는 "초선 1년 차 국회의원의 입법이나 의정 활동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느정도 적응기임을 인정하면서도 2년 차부터는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며 "국회의원은 지역의 민원 창구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면서도 국가 의제에 대한 네거티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호남 정치력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민주당 내 당권과 대선이 라는 모멘텀을 통해 국회의원 스스로 성장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각자 상임위에서 전문화된 영역을 발굴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선욱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 與 당권주자들 '대통령 선거 후보 연기' 선긋기

속속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론'과 선을 긋고 있다.

전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선,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이 단결하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 입각한 공정한 대선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회견 후 만난 기자들이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선이 있는 해에 물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반약에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면 일차적으로는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들이 동의해야 한다"며 "단 한명이라도 반대자 있으면 안 된다. 일차적으로는 대선 후보들 전원이 합의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경선 연기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우원식 의원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헌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상황을 반영해서 빨리 뽑을 필요 없다는 얘기도 근거와 이유가 다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피해야 되는 건 이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문제는 지금 논의하면 괜히 분란만 생기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분이 그때 고민할 문제"라고 받아넘겼다.

비주류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야 대선주자 1.2위를 달리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등 '잠룡'들의 지지율은 5%를 넘지 못하며 한자릿수대에 머물러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미안마 지지' 국회의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영상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의 제안으로 미안마 민주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이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1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시작한 '임을 위한 행진곡'에는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광주 출신 민형배 송갑석 양항자 윤영덕 이병훈 조오섭 국회의원 7명과 어민주당 송영길 우원식 이용선 위성곤 조승래 의원, 양정숙(무소속) 등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국회편은 총1분20초 분량으로 만들어졌고 광주문화재단이 의뢰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제작했다.

영상물은 이용빈TV([https://youtu.be/yZR\\_z7Tw3\\_Y](https://youtu.be/yZR_z7Tw3_Y)) 광주문화재단 유튜브(<https://youtu.be/>



지난달 28일부터 참여를 시작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국회의원 동영상 공개. (사진= 이용빈의원 제공)

ISQOrVanPAD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제작된 국회편에 이어,

후속편은 작가 26명과 시민 100여명 이 참여했다. 김민정기자

## 김종인-금태섭, 내일 회동 제3지대 정당 창당 논의할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금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의 회동은 상당히 사적인 일정"이라면서도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신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당을 창당하는 게 (금 전 의원이 구상하는) 신당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당 구상은 아직 구체적

인 단계가 아니다"라며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야권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 금 당장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 건 이르다"며 "(진 중권 전 교수 김경을 회계사와는) 얘기가 나오면 (함께)하는 거다. 점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